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기아차 신형 K7〉

불황의 역설 ... ‘큰 차’가 잘나간다

기아차 신형 K7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EQ900의 인기에 힘입어 ‘큰 차 전성시대’가 열렸다. 7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올 들어 2월 까지 완성차 5사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한 준대형차는 2만170대, 대형차는 1만695대로 상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판매대수 17만8천925대 중 11.3%와 6.0%를 각각 차지했다. 준대형차와 대형차를 더한 ‘준대형차 이상’ 차급의 판매비중은 17.3%에 달한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2011년의 17.2%를 5년만에 뛰어넘은 신 기록이다. 내수 시장에서 준대형차 이상 차급의 판매비중은 2004년 10.5%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현대차의 4세대 그랜저(TG)가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15.2%까지 상승했다가 2010년까지 12~15%대를 오르내렸다. 그러다 2011년에 5세대 그랜저(HG) 출시와 기아차 K7의 판매호조로 17.2%로 뛰어올랐다. 이후 13~14%대에서 주춤하던 준대형차 이상 차급의 판매비중은 올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월에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7.3%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출고가 시작된 EQ900과 2월부터 본격 판매된 신형 K7이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며 쌍끌이에 나섰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출시된 신형 K7은

K7·EQ900 등 신차 효과에 준대형 이상 ‘날개’

전체의 17.3% 차지 ... 판매 비중 사상 최대

소형차·경차는 부진 ... 싼 기름값도 변화 영향

본격 판매 첫 달인 2월 한달간 6046대가 팔리며 역대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수립했다. 1세대 K7이 2009년 12월에 세웠던 기록(5640대)을 6년2개월만에 경신한 것이다. K7은 준대형차 최초로 기아차 모든 차종 가운데 2월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인 EQ

900도 1월 2164대, 2월에는 2476대가 판매되며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까지 현대차의 플래그십(기함) 모델이었던 에쿠스가 한달에 1000대 전후로 판매됐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최근 EQ900 생산량을 연간 1만6000대에서 3만2000대로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한국GM이 야심차게 내놓은 임팔라와 쌍용차 체어맨W의 업그레이드 모델 카이저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있어 큰 차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준대형차의 판매 상승세로 경차와 소형차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추락했다. 올 들어 2월까지 경차와 소형차를 합친 판매대수는 2만4938대로 나타났다. 비중은 약 13.9% 정도다. 가격이 훨씬 비싼 대형 세단들이 소형차·경차보다 많이 팔리고 있는 셈이다. ‘대표선수’들의 부진이 이 같은 상황을 연출시켰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소형차들은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현대차 엑센트의 경우 1~2월 내수에서 2063대가 팔렸다. 전년 동기 대비 13.9% 떨어진 수치다. 기아차 프라이드는 2016년 1~2월 602대 출고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판매량이 59.4%나 빠졌다. 한국지엠의 소형차 쉐보레 아베오는 1~2월 485대가 팔렸다. 전년 동기 대비 59.4% 하락한 양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K7과 EQ900이 인기를 끌면서 큰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 기름값도 싸져서 내수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장만하고 전동휠체어 기부하세요”

차 1대 판매당 1000원 적립 ‘해피 모빌리티’ 나눔 캠페인

KIA Happy Mobility 나눔 캠페인



“올 봄, 기아자동차 한 대 장만하시고 전동휠체어도 기부하세요!” 기아자동차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해피 모빌리티(Happy Mobility)’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피 모빌리티’ 캠페인은 기아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전국 영업망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동 약자들의 이동성(Mobility)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기아차는 5월 31일까지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1대당 1000원의 금액을 적립,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성금을 모아 오는 6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 예정이다. 성금을 전달 받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에서는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대상 아동들에게 휠체어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기아차는 또 단순히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는 10월 임직원과 휠체어를 지원 받은 아동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봉사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고객께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을 따뜻한 온기로 바꾸어 지역사회에 아동을 돌보고 나누고자 이 같은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해피 모빌리티 나눔 캠페인이 기아자동차 대표 사회 공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벤츠 “개별소비세 인하분 돌려 드립니다”

1월 차량 구매고객에 개별 공시



최근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벤츠 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개소세 환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프로모션과 별도로 지난 1월 판매 차량에 개소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산

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일제히 나선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거부하자 개소세 탈루, 과장 광고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이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

하된 3.5%로 유지된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일부 고객을 중심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었다. 국내 수입차 선두권인 벤츠가 1월 개소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환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실제도로 임시운행 허가 받아

국토교통부가 7일 제네시스에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 첫 허가를 내림에 따라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기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12일 ‘제네시스’를 자율주행 1호로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교통안전공단의 확인 결과 제네시스가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 7일 시험 운행 허가가 나왔다. 이번이 시도되는 자율주행 시험차는 제네시스 1세대. 주요 기술은 자동차로 유지, 차간거리 및 차속 제어, 자동 차로변경,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분기점(JC) 자동 진출입, 고속도로 불빛(TG) 자동 진출입, 교차로 자동 진출입 등이다. /연합뉴스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검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은)

010-7384-78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4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1. 북구 두암동 (토 46평, 건 41평) 광주문화초등학교 남측,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1. 서구 농성동 (토 41평, 건 45평) (1층 점포, 2층주택)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 건 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2. 남구 양림동 (토 40평, 건 25평) 학강초등학교 북서측, 본건차량가능 감정가 7천백 → 최저가 7천백	2. 서구 풍암동 (토 68평, 건 170평) (1층 식당, 2층 사무실, 3층주택)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 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3.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건물 깨끗, 실업주 주택 적극추천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8천5백	3.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의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지대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 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